

번역의 열매 - 요한복음 초역을 마치다!

올 초에 시작한 요한복음 초역이 마지막 21장까지 끝났습니다. 이전에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초역할 때와 비교해 보면 시간도 많이 단축되었지만, 더 의미 있는 것은 카니누와 번역팀이 스스로 성경을 공부하며 번역했다는 것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와 함께 번역할 본문 말씀을 공부하고 칠판에 한 절 한 절 써가며 번역했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번역팀 스스로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그룹별로 나누어 말씀을 번역해 본 것입니다. 다양한 영어 성경 번역본을 읽으면서 비교하고, 말씀의 의미를 아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자료를 참고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카니누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초역한 것입니다.

작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파푸아뉴기니 국내에서도 이동과 사역에 여러 제약이 있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끝나겠지... 했는데 계속 길어지면서 이제까지 해 온 방식으로는 사역하기가 어렵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12월 마을에서 사역할 때 번역팀과 번역 위원회가 함께 모여 올해의 사역에 대해 의논하면서 앞으로는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알로타우에서 한 해에 네 번 번역자들이 모이기로 했습니다. 번역한 내용을 컴퓨터에 입력하고, 그것을 온라인으로 보내고, 온라인 상태에서 점검받는 방법을 배우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을 실행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어디든 그렇겠지만 이곳도 한 번 움직일 때마다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교통비, 숙박비, 식품비, 인쇄비... 적어도 번역자들이 배나 덩이를 타고 섬에서 알로타우로 나올 수 있게 마을 공동체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유일하게 돈벌이가 되는 해삼을 채취하고 말려 파는 일이 금지되어서 마을 사람들 형편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마을 공동체와 교회의 협력으로 지난 2, 6, 8, 10월에 번역자들이 알로타우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카니누와 성경 번역이 번역자 몇 명이 헌신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와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야 가능한 것임을 마을 사람들이 경험하게 된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할렐루야!

연구의 열매 - 카니누와어 문법 논문을 마치다!

마침내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카니누와어 문법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내용을 학술적으로 정리한 논문이 이번 달에 최종적으로 저희 단체 언어학 자문위원들의 승인을 받아 온라인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https://pnglanguages.sil.org/resources/archives/91825> 에서 pdf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카니누와어의 규칙을 연구하기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이야기가 필요한데, 이 이야기들을 모으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대부분 말로만 이야기를 해왔기에 글로 쓰인 것들이 없어서 개인적으로 써 달라고 부탁도 하고, 함께 모여 글짓기 대회도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카니누와 번역자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대신 그 이야기를 글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연구에 필요한 이야기들을 고르고, 언어의 규칙을 분석하고, 참고 자료를 읽고, 언어학자 선교사들의 조언을 듣고, 다시 분석하고... 같은 과정을 반복하면서 시간만 흐르고 정리하지 못할 것 같았던 카니누와어 문법이 드디어 첫 단추를 끼운 것입니다. 이 말은 앞으로 끼워야 할 두 번째, 세 번째 단추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카니누와어 문법과 관련해 풀어야 할 숙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엔 정리한 문법 논문이 번역자들이 성경 말씀을 번역할 때, 마을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글을 쓸 때,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카니누와어를 가르칠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 마태복음 번역을 시작하는 속테스, 잭, 레비, 사이몬, 마가렛이 함께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 성령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서로 돕도록,
- 요한복음 20, 21장 초역한 자료가 조만간 알로타우 센터에 도착해서 저희에게 이메일로 잘 전달되도록,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성경 이야기를 번역하고 녹음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을 주시도록,
- 지역 개발 관련 회의가 12월 시베시베 마을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회의에서 번역사무실 건축 안건이 잘 처리되어 건축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은혜의 선물은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같은 주님을 섬깁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입니다.”
(고린도전서 12:4-6, 표준새번역)

2021년도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웠던 지난 2년. 각자가 받은 은혜의 선물도, 그것으로 각자 섬긴 일의 종류도, 그리고 그 일의 성과도 서로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주신 분도, 우리가 섬긴 분도,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도 같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사도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열매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2021년 마지막 한 달도 범사에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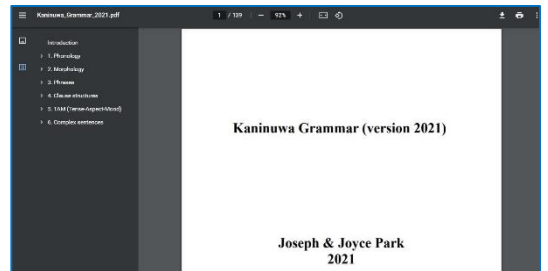
2021년 11월 26일 박요섭 조선향 선교사 드림



번역팀과 함께 요한복음을 번역하는 레비



번역팀을 돕기 위한 음식 바자회에 참여한 마을 사람들



온라인으로 출판된 카니누와어 문법 논문 (2021년 판)



Wycliffe Bible Translators of Canada
윌클리프 캐나다 성경번역 선교회
4316 - 10 St. NE Calgary, AB T2E 6K3
전화: 1-403-250-5411 / 1-800-463-1143

Joseph & Joyce Park (파푸아뉴기니)
휴대전화: (국가번호 675) 7109-5044
이메일: joseph-joyce_park@wycliffe.ca
카톡 id: kaninuwa2011

